



가정간호는 이렇게
／ 朴 貞 浩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서부터 전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 한다. 현대의학의 발달은 생명
을 연장시키는 기술의 정상에 달해
서 신체 각부분의 이식도 성공했지
만 아직도 농촌가정의 대부분은 보
건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
에서 가정간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본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
간호의 직접적인 책임이 주부에게
있으므로 어머니는 한 가정의 중심

인물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운영하
는 역할외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책임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
길인 질병으로부터 구제하는 가정
간호를 담당하는 역할 또한 지대하
다고 생각된다.

가정간호 담당자는 의사나 간호
원에게 환자의 증세나 증후, 발병
후의 자세한 경과를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전달하므로써 질병치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체온계를 입안 혀 밑에 넣
어서 체온을 측정해 둔다. 또 일반
적으로 질병을 앓을 때는 맥박이
증가하므로 환자 손목에 제2, 3, 4지
끝을 얹고 엄지 손가락은 뒤로 돌
려서 환자팔목을 받치고 1분간의
맥박을 헤아린다. 호흡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사기능
의 한가지로서 어느 신체적 이상이
생긴다면 질병을 진단하고 예후를
판단하는데 있어 호흡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호흡수나 깊이를
관찰해야 한다.

몸에 열이 있을 때에는 우선 열
을 내리는 대증요법으로 찬물수건
을 얹어주거나 실신을 안정시키도
록 하며 땀이나서 피부가 불결하기
쉬우므로 따뜻한 물에다 적신 수건
으로 자주 닦아주도록 한다. 마시
는 물은 소변양을 증가시켜서 체내
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배설하고 식

●가정 간호는 이렇게

육을 뜯구르므로 충분히 먹어야 한다.

급성열병인 때에는 영양이 좋을수록 체중의 감소를 방지하고 체력을 유지하며 그 질병을 극복하는 면역체의 생성을 왕성하게 하므로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기를 단축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많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쉽게 기호를 참작하여 식욕이 감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열이 있을 때 식사횟수는 보통 하루 5~6회로 나누어 조금씩 하도록 한다.

얼음주머니를 쓸 때에는 얼음을 너무 크지 않게 깨어서 각이 없도록 해가지고 주머니의 반쯤 넣고 될수 있으면 주머니 속 공기를 전부 빼내고 주머니를 단단히 매고 변포로 싸서 었는다.

어떠한 병을 막론하고 환자에 접촉하고 간호하는 사람은 신기 신체와 의복을 정결히 해야한다. 특히 전염병에 있어서는 더욱 간호하는 사람 자신을 소홀히 하는 때에는 간호자 자신이 감염됨은 물론이려니와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우려가 많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질병에 적응하여 소변대변, 가래, 옷, 침구, 도구, 병실장난감등을 일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소독해야 한다. 특히 손은 언제나 깨끗이해야 한다. 환자의 대

소변, 토물, 객담은 태우거나 석탄산, 크레졸등의 약물소독을 해야한다. 의복이나 침구는 삶아서 햇볕에 충분히 말리도록 하고 식기는 30분이상 끓여서 쓰도록 한다.

주부는 환자에 대한 간호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예방과 보건증진을 위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하겠다. 건강한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므로서 산전, 분만, 산후의 전기간을 건강하게 보내도록 한다. 또한 아기들의 건강증진과 감염예방을 위해 전염병에 대한 보호조치와 예방주사를 적기에 맞추도록 한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아기의 발육상태를 진찰받고 예방주사를 맞추는 것이 아기를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막는 최선의 길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예방접종의 시작적기를 대개 생후 2개월에서 6개월이내로 보는데 디피테리, 천연두, 결핵, 소아마비, 홍역, 풍두등을 의사지시에 따라 하도록 한다.

<필자=서울의대 간호학과장 >

간협 서울지부 회장>